

희망 2006 이웃사랑캠페인 메시지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춥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걱정이 더욱 많아지는 분들이 계십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어린 나이에 동생들 돌보면서 살림살이까지 돌보고 있는 소년소녀가장들, 몸이 불편한 분들, 그리고 기본적인 생계도 안되는 분들, 모두가 함께해야 할 우리의 이웃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이분들의 몸과 마음을 훈훈하게 해 줄 수 있습니다. 새로운 힘과 용기를 심어 줄 수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는 희망한국을 만들어 가는 아름다운 실천입니다. 더불어 살아야 더 잘살 수 있습니다. 함께 나누어야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정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망 2006 이웃사랑캠페인이 우리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올 겨울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